

## 국방개혁 2.0은 접경지역이 함께하는 “상생의 개혁”으로

이현종

철원군수

### 국방개혁 2.0이 접경지역에 초래한 위협

철원군은 한반도 중부 전선에 위치한 최대의 군사요충지로, 155마일의 휴전선 중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54마일이 포함된다. 또한, 철원군은 남·북한의 공격 화력이 집중 배치되어 상호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사지역이다.

이렇게 넓은 관할지역으로 인해 철원군에는 현재 3, 5, 6, 15사단 등 4개 사단 및 군단 직할대를 비롯한 많은 병력이 주둔해 있다. 특히 3사단과 6사단의 주 주둔지역으로 수많은 예하 부대가 위치하여 70여 년간 철원군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전방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철원군에 주둔 중인 6사단이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면서 3사단이 철원군 전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병력 감소로 인한 지역주민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피해지역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전무한 국방개혁

철원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지역경제는 군사지역 특성상 군부대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군 병력의 감소는 군인 가족 및 장병 면회객 등이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 존폐의 갈림길에 몰렸다. 또한, 지역 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부세 등 세수가 감소하고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접경지역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국방개혁 2.0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인구감소에 따른 군부대 개편은 2006년 국방개혁기본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과제로, 단기에 계획된 개혁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방개혁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더구나 접경지역의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의 국방개혁안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는 있으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어느 한 곳의 정부 부처도 접경지역에 적합한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피해는 해당 지역이 고스란히 감내해 내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접경지역 시군에서 꼭 필요한 지원책을 요구하여도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군부대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 군부대 시설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도 이런저런 사유로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규제완화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접경지역을 위한 “상생의 개혁”으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철원군민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개발 낙후와 각종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부분을 희생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왔다.

“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2018.7.27.)

“국방개혁안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 2.0이 軍만을 위하고 지역을 위협하는 개혁이 아니라, 軍과 접경지역 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쳐 추진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며,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IG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UNIFICATION-NORTHERN RESEARCH CENTER

발행번호  
No. 21-8

발행일  
2021년 6월 21일

통일·북방정책포커스는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본 포커스에서는 통일·북방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통일·북방연구센터: ljh527@rig.re.kr/033-250-2985